

### Ⅲ. 보험산업 SWOT 분석과 역량평가

#### 1. 환경변화에 따른 SWOT 분석

##### 가. 위협요인 분석

######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존 보험시장의 성숙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 부문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그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또한 가구별 보험가입률이 90%로 기존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해외진출과 신규시장 개척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 2)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방카슈랑스 확대를 배경으로 은행계 보험회사의 보험산업 내 비중 증가는 보험산업이 자칫 은행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은 1997년 금융겸업화 차원에서 개방되어 자회사로 생·손보사를 설립, 완전 소유할 수 있으나 산업자본계 보험회사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규제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 완전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경쟁에서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나. 기회요인 분석

###### 1) 부수업무 확대로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

규제완화에 따라 부가가치 획득이 기대되는 부수적인 금융업무가 확대될 경우 신규의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통합금융법에서 제시될 금융산업간 업무영역의 정의가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별로 명확하게 규명되고,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도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겸업화에 의한 보험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 해외보험시장 진출 기반 구축

금융겸업화는 글로벌 경쟁력 수준에 이른 선도적인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국내산업 환경에 맞춰져 있던 보험회사의 경영방식 및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변화시키면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 선진보험 기법 도입 기회

외국 선진보험회사의 국내진출에 따라 선진적인 보험기법과 영업관행 등의 국내 전수는 국내 보험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강점

### 1) 위험관리 능력 우월(손해보험)

미래의 재난이나 질병에 따른 위험관리 및 평가능력 측면에서 보험업은 타금융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거대 자연재해의 빈발과 소비자 권리의식 제고에 따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위험관리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창출됨으로써 보험산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

---

1) 위험관리 관련 상품의 경우 손해보험 상품구조가 5년 미만의 단기성 상품

&lt;표 III-1&gt; 보험산업의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능력 우월(손해보험)</li> <li>• 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장기 상품 운용능력 탁월(생명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li> <li>• 글로벌 경쟁력 취약</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Strength</b></td> <td style="text-align: center;"><b>Weakness</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Opportunity</b></td> <td style="text-align: center;"><b>Threat</b></td> </tr> </table>	<b>Strength</b>	<b>Weakness</b>	<b>Opportunity</b>
<b>Strength</b>	<b>Weakness</b>			
<b>Opportunity</b>	<b>Threa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업무 확대로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li> <li>• 해외보험시장 진출 기반 구축</li> <li>• 선진보험 기법 도입 기회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보험시장의 성숙</li> <li>• 은행업 중심의 금융정책 및 금융 산업 운영으로 보험산업의 위축</li> </ul>			

## 2) 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장기 상품운용능력 탁월(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운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전문성이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운용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 가격설정리스크의 변동성을 즉시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조정기능(계산기초율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채권의 비중이 높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은행이나 투신 등의 경우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장기상품 운용능력의 경우 단순한 수익률 개념보다는 운

## 라. 약점

### 1)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은행 및 증권에 비하여 자산운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우호적인 투자환경에서 안주해오던 보험회사들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전문인력 보충 및 운용기법 선진화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양성과 육성을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와 은행의 경우 그 특성이 상이하여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ALM시스템 단계별 구축에 있어 국내 17개 은행 중 16개 은행이 ALM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최고 단계라 할 수 있는 RAPM시스템(5단계)은 4개 은행이 이미 구축하였고 6개 은행이 구축 중에 있음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ALM시스템은 1개사만이 구축하여 활용(3단계)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 2)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소규모성)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글로벌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인력, 역사, 보험기법 등의 정성적인 측면과 규모, 수익성 등의 정량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sup>4)</sup>.

---

영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같은 질적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 단순한 수익률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은 등 장기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이 장기간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자세한 내용은 류건식·정석영·이정환, 『보험회사의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2002, 제2장과 제5장을 참고.

그런데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보험회사나 방카슈랑스전문 보험사, 연금 및 건강보험 분야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 및 전문영역이 확고한 각종 보험업체 등의 진출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국제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 증가 등으로 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글로벌 기준의 한국보험산업 역량 평가

### 가. 주요 보험지표 비교

외환위기 이후 둔화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신규시장의 개척과 다양한 판매채널의 도입 등으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국제 순위는 유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생 · 손보 수입보험료 합계 597억 6천만 달러<sup>5)</sup>를 나타내면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표 III-2> 참조).

- 
- 4) “Fortune 500”에서 100대 기업 중 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와 이익을 기준으로 allianz(11위), AXA(13위), ING Group(17위)등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일본의 경우, 일본생명(36위), 제일생명(79위) 등의 보험사가 100위권 내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사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의 약세를 부정할 수 없다. Fortune, “Fortune 500”, 2004.8 참조.
- 5) 수입보험료 집계 방식, 기준연도(CY기준) 등의 차이로 보험개발원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다.

<표 III-2> 2003년 수입보험료 기준 국가별 순위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 가	보험료	성장률	국 가	보험료	성장률	국 가	보험료	성장률
1	미 국	1,055,498	2.6	미 국	480,919	-2.1	미 국	574,579	6.9
2	일 본	478,865	-0.1	일 본	381,335	0.2	일 본	97,530	-1.5
3	영 국	246,733	-6.9	영 국	154,842	-13.4	독 일	94,073	3.2
4	독 일	170,811	3.4	프랑스	105,436	6.8	영 국	91,891	6.5
5	프랑스	163,679	6.4	독 일	76,738	3.6	프랑스	58,244	5.7
6	이탈리아	111,761	7.6	이탈리아	71,694	10.7	이탈리아	40,066	2.6
7	한 국	59,758	-1.2	한 국	41,998	-2.0	캐나다	36,303	13.6
8	캐나다	59,144	6.0	중 국	32,442	27.2	스페인	26,972	6.2
9	네덜란드	50,266	2.8	네덜란드	25,371	-1.0	네덜란드	24,895	7.0
10	스페인	47,014	-16.5	스위스	24,713	-4.6	호 주	18,044	7.0

주 : 우리나라 손해보험은 17,760 백만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Swiss Re, "Sigma", No.3, 2004

그러나,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보험밀도는 보험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1997년 18위에서 2003년 23위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 또한 1997년 2위에서 순위가 떨어져 2003년에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III-3> 참조). 이는 GDP 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 보험산업 규모의 낮은 성장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신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서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해 준다.

&lt;표 III-3&gt;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주요지표

년도	전체 수입보험료 (백만달러)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달러)	
	국제 순위	수입보험료	국제 순위	보험침투도 (보험료/ GDP)	국제 순위	보험밀도 (국민 일인 당 보험료)
1997년	6위	56,674	2위	15.42	18위	1,232.30
1998년	7위	47,989	2위	13.87	20위	1,033.60
1999년	7위	47,929	4위	11.28	22위	1,022.80
2000년	7위	58,348	3위	13.05	18위	1234.1
2001년	7위	20,537	4위	12.07	21위	1,060.10
2002년	7위	55,414	4위	11.61	22위	1,159.80
2003년	7위	59,758	9위	9.63	23위	1,243.00

자료 : Swiss Re, "Sigma", 각 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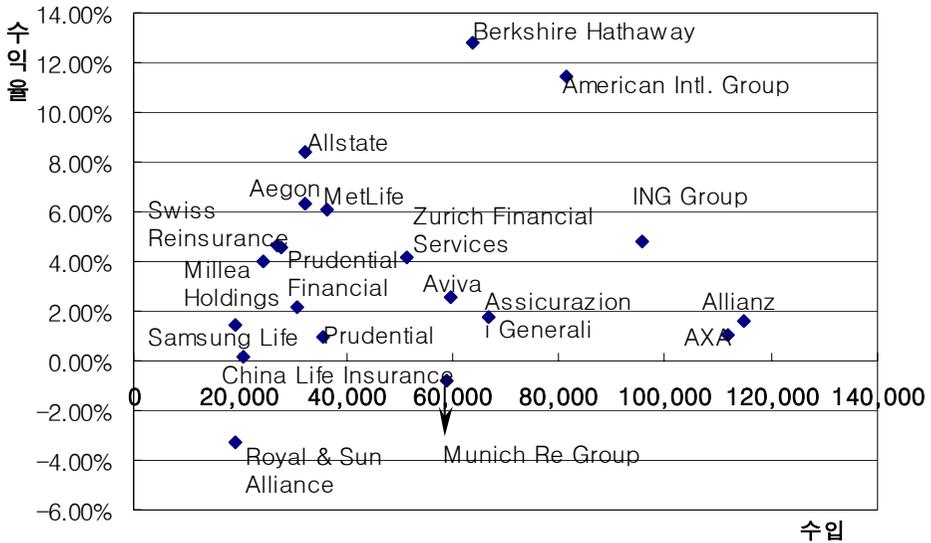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취한 결과, 매출과 수익성과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보험사 재무건전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보험회사들과 견주어 볼 때 삼성생명 1개사만 20대 보험회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 선진국의 대형보험사들에 비해 아직도 규모와 수익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규모가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달리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떨어지는 규모와 낮은 수익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II-1> 참조). 더욱이 국내 보험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본격화된 선진 외국사들의 대거 진출로 국내보험회사의 적은 외형과 낮은 수익성은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 6) 기존 보험시장의 경우 향후 침투기법이 선진화되더라도 다양한 상품개발 및 시장 개척(예, 종신, 변액 등)을 동반하지 않으면 성장시장으로의 전환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된다.

<그림 III-1>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적 위치(2003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Fortune, "Fortune 500", 2004.8

<표 III-4> 국내 보험회사수의 국제 비교

(단위 : 개, 억 US달러)

구분	미국	이태리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생보사	1,291	93	23	136	101	50
손보사	3,282	130	16	328	266	194
종합사	-	20	-	8	-	62
재보사	246	9	1	46	8	4
전체사	4,819	252	40	518	375	310
보험료	10,555	1,118	598	591	503	470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93-2000,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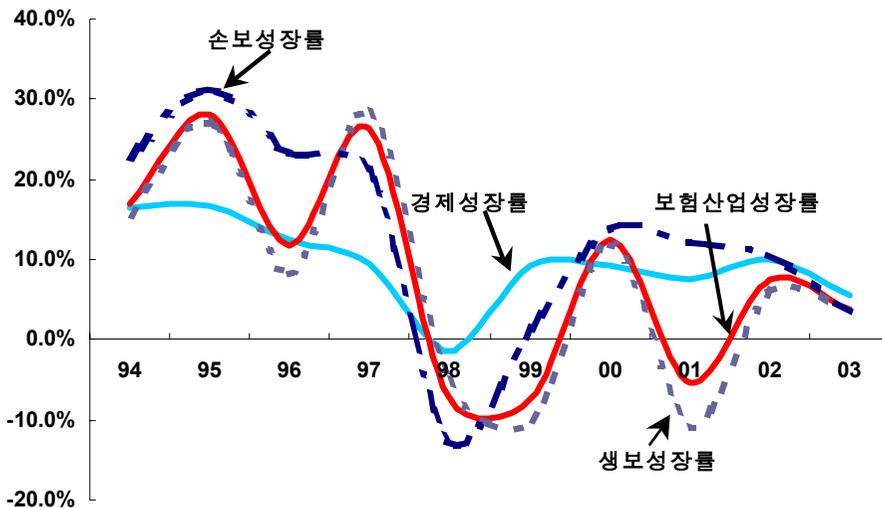
보험회사 수를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세계 7위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영위 중인 보험회사는 총 51개사(생보사 23개사, 손보사 28개사)로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에서 518개사가 영업 중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4 참조).

#### 나. 경영효율성 측면 비교

최근 10년간('94~'03) 보험산업은 연평균 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III-2 참조).

경제위기 이전 10년간 ('87~'97) 연평균 성장률이 생보 21%, 손보 14.2%이었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6년간 생보 7.4%, 손보 12.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III-2> 연도별 경제 및 보험산업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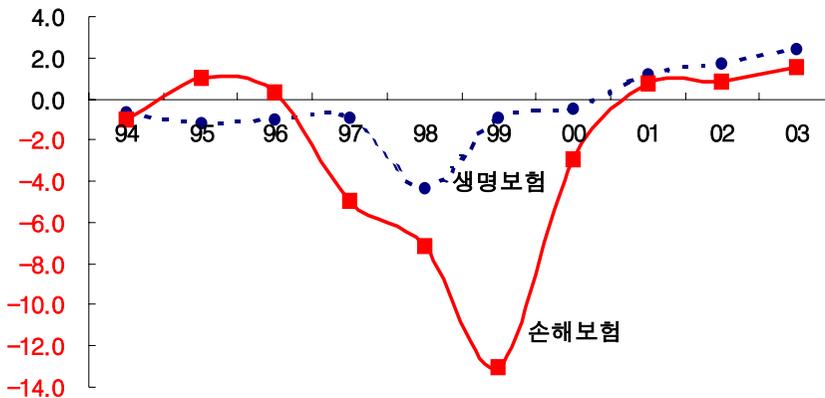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생명보험 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993년 24조 5천억에서 97년 IMF 직전 약 49조까지 성장하였으나, 그 후 하락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3년 45조 7천억을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 산업은 외환위기 직후 (-)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최근 3년간은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수익성(당기순이익/총자산)은 보험회사들의 비용효율성 증대전략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연도별 수익성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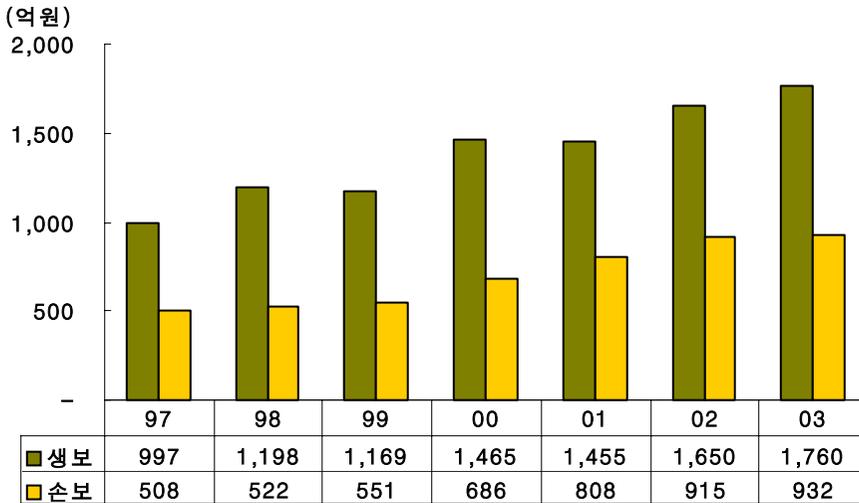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경제위기 이후 연이은 단기수익의 적자로 총자산수익률(ROA)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누적된 적자경영으로 자본과 자산의 운용과 잠식이 불가피한 듯하였으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본(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경영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그림 III-4&gt; 연도별 생산성(임직원 1인당 보험료)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생산성은 1997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향상을 나타내면서 생명보험은 1997년 임직원 1인당 997억원에서 2003년 1,7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손해보험도 1997년 508억원에서 2003년 93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I-4> 참조).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율(생보: 보험금지급율)은 주기적으로 등락하고 있다(<표 III-5> 참조).

7) 효율성은 사업비율(순사업비/보험료)과 손해율(생보는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생산성은 임직원 1인당 보험료(손보는 보유보험료)임.

<표 III-5> 연도별 효율성 추이

(단위 : %)

연도별	사업비율		손해율		ROA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1987	11.4	26.6	66.1	79.7	0.9	1.2
1990	11.7	26.7	56.7	79.8	-0.0	0.9
1995	18.2	22.6	63.5	76.7	-1.2	1.0
2000	8.6	24.9	80.1	80.6	-0.5	-2.9
2001	9.4	25.0	72.6	77.8	1.2	0.8
2002	9.7	25.2	59.1	72.0	1.7	0.8
2003	10.3	24.6	61.3	76.9	2.4	1.5

- 주 : 1) 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험료(손보는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임.  
 2)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임(생보는 지급보험금/보험료).  
 3)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임.

### 3. 타금융산업과 비교한 보험산업의 역량 평가

#### 가. 업무영역 측면

##### 1) 금융업종별 업무영역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업무영역 측면에서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겸업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가 금융그룹의 형성을 통한 금융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면서 지주회사방식을 활용한 금융겸업화가 추진될 기반이 조성되었다.

&lt;표 III-6&gt; '금융업무' 및 '금융업' 개념 (안)

		정 의
업	예금수취업무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취하는 업무
	신용제공업무	대출, 매매 및 대여를 위해 신용을 제공하는 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자로부터 인수하는 업무
	유가증권·파생상품 중개 업무	타인계정을 통하여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이 매매 되도록 하는 업무
	유가증권·파생상품 자기 매매업무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이 매매 되도록 하는 업무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업무	보험계약의 체결(인수)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업무
	보험계약의 중개 및 대리 업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업무
무	자산운용업무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
	투자자문업무	타인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투자일임업무	개별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해당 투자자에게 귀착시키는 업무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	금융상품,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타 대상을 타인을 위하여 보관 또는 가치변동 현황을 정리하여 타인에게 보고하는 업무
금융업	은행업	예금수취업무 및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여신전문업	매매 및 대여를 위한 신용제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증권 및 파생상품업	① 증권의 인수업무 ②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중개업무 ③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자기매매업무 중 한 가지 업무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업
	보험업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영위하는 금융업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자산보관 및 관리업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업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외,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4년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통합금융법 제정 연구』에 관한 KDI 발표자료, 2004.5.28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향후 금융 관련 법의 통합을 통한 겸업화 촉진을 고려하여 금융업무 및 금융업의 개념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표 III-6>참조).

현재 금융업종별 업무영역은 개별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은행업의 업무영역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과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그에 의거한 「재경부고시 제1999-12호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서 핵심 업무와 부수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증권업의 업무영역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다.

##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협소

보험업의 핵심(고유)업무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사업의 경우 핵심(고유)업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이 부수업무만 열거되고 있어 업무영역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표 III-7>참조).

<표 III-7> 보험업의 업무범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핵심(고유) 업무	-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보험업법 2조
부수업무	- 여신제공 - 보험계리 - 보험사고 및 계약 조사 - 기업의 인수·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 대여금고 -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보험업법 106조 - 보험업법 11조 - 시행령 16조
겸영업무	- 신탁업(보험금 신탁에 한정) - 유동화자산관리업무 (MBS 포함)	- 보험업법 11조 - 시행령 16조

&lt;표 III-8&gt; 타금융권 부수업무 비교

구분	부수업무 주요 내용	근거 법규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li> <li>- 상호부금</li> <li>-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li> <li>-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li> <li>- 환매조건부 채권매매</li> <li>- 국공채 창구매매</li> <li>- 팩토링</li> <li>- 보호예수</li> <li>- 수납 및 지급대행</li> <li>-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li> <li>- 기업합병 및 매수(M&amp;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li> <li>- 지급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li> <li>-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li> <li>- 부동산 임대</li> <li>-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li> <li>- 파생금융상품거래</li> <li>-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li> <li>-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li> <li>-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li> <li>-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li> <li>-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li> <li>-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li> <li>-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li> <li>-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법 27조</li> <li>- 시행령 18조의 2</li> <li>- 시행규칙(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3-13호)</li> </ul>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의 평가</li> <li>- 기업합병 및 매수의 주선 또는 중개</li> <li>-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li> <li>- 사채모집의 수탁</li> <li>-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li> <li>-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li> <li>- 자산유동화법률의 자산관리자 업무</li> <li>-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거래법 51조 1항</li> <li>- 시행령 36조의 2</li> </ul>

또한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 제한으로 겸업화에 의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보험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보험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과 달리, 다른 금융업종은 핵심 업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업무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열거하여 그 개념을 암묵적으로 추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산업간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겸업화를 확대할 경우에는 업무영역 재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통합금융법 제정시 금융업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겸업주의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타 금융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는 은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부수업무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이다(<표 III-8>참조).

#### 나. 경영효율성 측면 비교

##### 1) 수익성

은행은 내수경기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이자수익 증가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제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겸업화로 방카슈랑스, 모기지론 및 투신사 금융상품 판매 등에서 얻은 비이자수익이 증가하고 있다(<표 III-9> 참조).

증권업은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증권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증권회사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증시상황에 따른 수지차의 급격한 변동과 외국계 증권사 진출 및 신규 중소형 증권사의 지속적인 등장 등으로 인한 경쟁격화, 수수료 인하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lt;표 III-9&gt; 금융권별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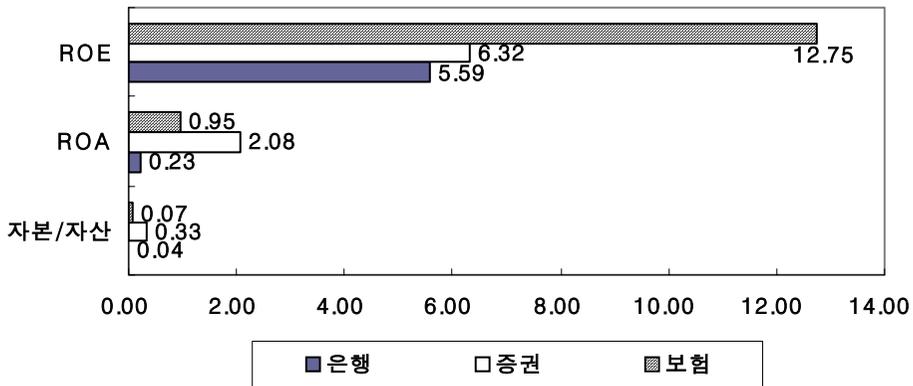
(단위:억원)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은행	52,792	50,837	18,591	36,319
증권사	6,878	△8,511	10,077	2,838
보험	생보사	28,218	15,874	20,696
	손보사	2,204	3,746	5,634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 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업은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내의 구조조정 및 신채널,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시현하고는 있다.

&lt;그림 III-5&gt; 금융권별 경영효율성 비교(FY2003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 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2003

생명보험산업은 만성적자에서 흑자구조로 변환된 FY 2001이후 종신 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상품포트폴리오 개선과 효율적 자원 재분배를 통한 내실위주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지표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FY2002에도 흑자로 이어졌으나, FY2003년에는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이익의 축소와 대형보험사들의 상장지연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납부 등으로 인한 기타수지 악화가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수익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익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표 III-10>참조).

<표 III-10>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익 추이

(단위:억원)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보 험 손 익	59,267	119,796	98,356	63,417
투 자 손 익	69,660	80,723	94,567	53,567
책임준비금전입액(-)	100,016	158,973	149,949	90,655
기 타 손 익*	△11,683	△13,328	△21,328	△5,625
당 기 손 익	17,228	28,218	15,874	20,696

주: 기타손익\* - 유형자산처분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세금과공과, 협회비 등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손해보험산업은 경제위기 이후 제반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보험영업수익 부진과 투자수익의 감소로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험영업수익의 부진 속에서도 투자영업이익이 뒷받침하면서 당기순익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III-11>참조).

<표 III-11>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익 추이

(단위:억원)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보험손익	△13,030	268	△6,081	△115
투자손익	17,136	8,901	14,960	8,857
기타손익*	△1,902	△5,423	△3,245	△1,772
당기순익	2,204	3,746	5,634	6,970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 호

## 2) 성장성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행된 구조조정 및 통합화로 은행은 그 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자산의 규모는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며 점차 대형화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권에 비해 구조조정과 통합화가 소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 수의 감소 및 자산증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금융권별 자산 및 수지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은행	총자산	6,414,198	7,731,174	8,111,861	8,127,454
	수신 (원화예수금)	3,606,321 (56.2%)*	4,144,000 (53.6%)	4,290,943 (52.9%)	4,257,683 (52.4%)
	자본금	262,994	297,601	332,415	354,711
증권	총자산	589,620	504,761	483,688	526,793
	예탁금 (현금예금)	42,239 (7.2%)	25,468 (5.0%)	23,837 (4.9%)	29,397 (5.6%)
	자본금	177,664	175,394	159,527	153,894
보험	총자산	1,755,281	1,993,744	2,259,717	1,993,836
	수보	598,065 (34.1%)	642,660 (32.2%)	666,420 (29.5%)	358,159 (18.0%)
	자본금	165,224	168,662	169,023	197,671

주 : ( )\*는 총자산 대비 수신, 예탁금, 수보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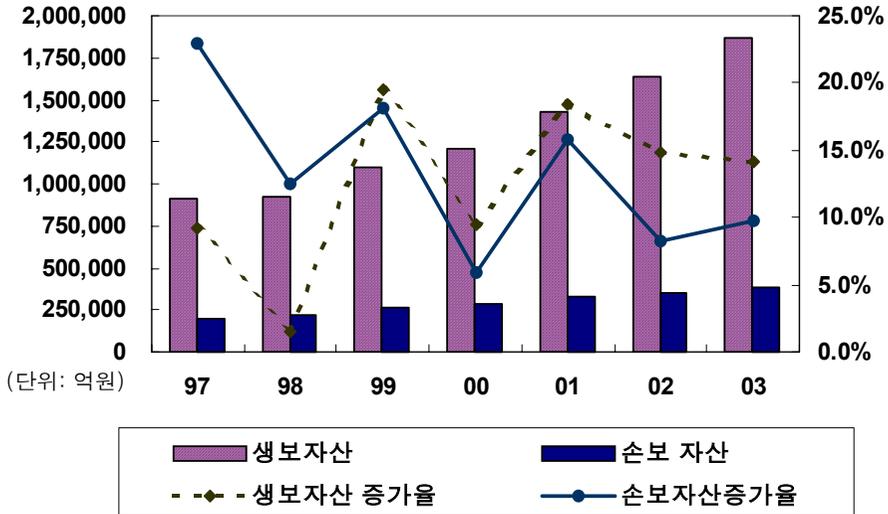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 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각 년호

보험회사의 총자산 증가 수준은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모두 소폭 이나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시장금리의 하락 및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운용수익을 급락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과 주식시장의 호황 등의

투자환경,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개선 및 계약유지율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총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2003년 9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로 인해 가시화된 금융의 겸업화에 따라 금융업무의 수평적 통합 및 수직적 분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은행의 상대적 우위가 부각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수평적으로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수직적으로는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네트워크와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은 다양한 상품군과 인지도 및 신뢰도 등의 강점을 이용하여 타 금융권 상품의 위탁판매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펀드 판매의 경우 아직 증권사가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형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2%에서 2004년 9월 26.2%<sup>8)</sup>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2003년 9월부터 시행된 1단계 방카슈랑스 대상 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은행 판매비중은 2004년 6월 말 기준으로 69.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1/4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생존보험	74,955	19.8 <sup>3)</sup>	91,424	22.0	115,676	25.9	28,266	25.0
사망보험	174,334	46.1	213,677	51.4	229,359	51.3	61,844	54.8
생사혼합	128,510	34.0	110,392	26.6	94,505	21.1	20,028	17.7
개인보험계 <sup>1)</sup>	377,799	79.8	415,493	84.7	447,161	88.7	112,923	93.2
단체보험계 <sup>2)</sup>	95,844	20.2	75,175	15.3	56,764	11.3	8,262	6.8
전체	473,643	100	490,668	100	503,925	100	121,185	100

주 : 1) FY2003 이후 개인보험계에는 변액보험이 포함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함.

3) 개인보험계 대비 비중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상품포트폴리오를 통한 보험회사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의 꾸준한 증가로 사망보험 상품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퇴직보험의 퇴조로 개인보험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III-13>참조).

8) 계약형 투자신탁 판매비중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9
증권사	92.8%	89.0%	86.3%	81.2%	73.6%
은행	7.2%	11.0%	13.9%	18.6%	26.2%
기타	-	-	-	0.2%	0.2%

주: 기타는 선물회사, 종금사임.

자료: 자산운용협회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상품의 비중이 감소 추세이나 장기보험 상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1/4분기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화재	3,035	1.6	3,219	1.6	3,160	1.5	763	1.4
해상	5,292	2.8	5,605	2.7	5,242	2.5	1,263	2.3
자동차	74,601	39.9	79,138	38.4	79,606	37.2	20,851	37.4
보증	7,156	3.8	9,632	4.7	9,419	4.4	2,353	4.2
특종	13,876	7.4	16,734	8.1	18,073	8.5	5,083	9.1
해외원보험	502	0.3	564	0.3	628	0.3	208	0.4
장기	72,882	39.0	80,134	38.9	85,794	40.1	22,795	40.9
개인연금	6,678	3.6	6,786	3.3	6,873	3.2	1,746	3.1
퇴직보험	2,865	1.5	4,401	2.1	4,949	2.3	686	1.2
전체	186,887	100	205,944	100	213,743	100	55,748	100

주 :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